

# 대선 대진표 윤곽... 고개 드는 비문연대

### 안철수 일단 독자 노선 속 “국민의당 중심 힘 모을 것”

### 유승민 조진부 단일화론...김종인·정운찬·홍석현 회동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정당의 대선 주자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비문(비문재인)연대'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비문연대를 둘러싼 각 당과 주자들의 입장이 달라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총대를 매고 나서 아직 불씨는 살아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비문연대 성사의 열쇠를 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비문연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결과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국민이 정해준 우리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집권하기 위해 많은 분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재인-안철수’ 양강구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인위적 연대 및 후보단일화 과정 없이 시대적 과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운다면 자연스럽게 중도·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선 경쟁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뿐만 아니라 김동철 의원 등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도 연대론을 주장해왔지만 안 전 대표의 경선 압승이 이어지면서 목소리가 잦아드는 분위기다.

특히, 호남과 진보 진영이 바른정당 등과의 정치공학적 연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선부론 연대 논의는 오히려 집토끼를 잃는 역풍도 부담이다.

박지원 대표가 전날 “국민이 자동으로 연합이나 연대, 연정의 길을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연대론에 길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보수 진영을 흔들기 위한 유향적인 발언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유승민 후보는 한국당에 친박 인적정산을 주문하고, 국민의당에는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며 ‘조진부 단일화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은 국민의당이 보수세력과의 연대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유력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된다면 친박 정산을 고리로 ‘범보수 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대선 출마 시사와 함께 비문 후보단일화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 전 비대위 대표는 29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및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조찬 회동을 했지만 대중적 지지 기반이 약한

데다 시간도 충분치 않아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전 비대위 대표의 측근인 최명길 의원이 이날 후속 탈당을 결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비문(비문재인) 진영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진영, 이언주 등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정권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윤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선 이후의 당내 지형과 바깥에서 전개될 비문 연대 및 단일화 전개 상황에 따라 연세 탈당 여부 결정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예천 중진회 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2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웨딩의전당에서 열린 순흥인사예천군중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태극기 팔아 대선 나왔나” vs “판공비를 집에 가져가나”

### 한국당 토론 ‘봉숭아 학당’... 홍준표-김진태 날선 공방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29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토론회에는 홍 지사와 김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등 주자 4명이 나섰다. 하지만 31일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1, 2위를 달리는 홍지사와 김 의원 간 신경전이 뜨거웠다.

김 의원은 과거 홍 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을 ‘집사람의 비자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것을 문제 삼아 포문을 열었다. 홍 지사가 원내대표 시절 ‘국회대책비’ 명목의 활동 지

원비를 비자금처럼 모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TV토론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판공비 일부를 집에 가져다줘서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집에 있는 비자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공비를 집에 가져다줄 수 있냐.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운영위원장 판공비

를 정치활동비로 썼기 때문에 월급하고 개인 돈이 남았다. 그걸 집에 가져다줬다는 말이 판공비를 가져다줬다는 게 아니다”며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키면서 “제 재판을 걱정하지 말고 선거법 재판이나 열심히 하라.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석한 김 의원을 겨냥, “김 의원은 친박을 팔아서 정치하고 태극기를 팔아서 대선후보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결국 목표는 내년 강원도지사 아닌가. 강원도지사를

하려면 현재 재정신청도 있는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대선주자 라이벌이 아닌 ‘도지사 지망생’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친박 자체가 우리당에 이제 없다. 더이상 계파를 따지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태극기를 팔았더니 정말 심각하다. 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각되도록 온몸을 바쳐 노력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지사에 관심조차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 지사에게 “3심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이게 바뀌거나 하면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당은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문 캠프, 사실 왜곡 한국당 대변인 고소

### “文, 유병연 기업 파산관재인 아니라 피해자측 파산관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9일 세월호 유병연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관련성 등을 제기한 한국당 대변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남부지검에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연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 관재인을 맡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병연 업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 1153억원의 빚이 탕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측 김경수 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문 후보는 세모

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중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며 “오히려 세월호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소송관결까지 받았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는 허위 정치공세가 한국당의 전매특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캠프 특보단장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최근 문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고 주장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마찬가지로”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10인의 프론티어’ 영입

### 신성장특위 설치...위원장에 고건 전 총리 아들 고진씨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9일 국내 여성 1호 장례지도자인 심은이 씨를 비롯해 새로운 분야에서 길을 개척한 ‘10인의 프론티어’를 영입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 신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간 인물들을 영입했다”면서 프론티어 명단을 밝혔다.

여기에는 심씨와 인디음악 전문배급사인 미래블루직의 이창희 대표, 1세대 재미 원로 물리학자인 안세형씨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 국제 NGO 환경당

제 ‘기후프로젝트’의 이동식 한국지부장 ▲ 최형연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 강기호 드림교회 담임목사 ▲ 김희태 북한인권 제3의길 사무국장 ▲ 박창덕 경기다문화협동조합 이사 ▲ 전호성 전주교육대 사회학과 교수 ▲ 안영기 계관자조금관리위원장도 영입인사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성장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 고 회장과 IT벤처기업가 출신인 김병관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고정석 일신창업투자 대표, 김창현 포스텍 교수, 김현배 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 변재완 전 SKT 미래기술원장, 이수영 KAIST 교수, 이장우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김무성 바른정당 선대위원장에

### 인명진 31일 비대위원장 사퇴

바른정당은 29일 유승민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당 교문인 김무성 의원을 추대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에서 “김무성 고문님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면서 김 의원을 추대했다.

김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6선인 김 의원의 정치적 비중과 무게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 비문(비문재인) 후보단일화 문제 등과 관련해 유 후보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29일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직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생각 끝에 31일 우리 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끝으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소임은 이제 끝났다”며 “이제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재창출의 대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인 위원장이 주도권을 넘겨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사퇴 선언 시점이 갑작스럽다며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